

광산구, 모두가 누리는 복지플랫폼 시동

광주 구청 첫 공공복지재단 추진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광주 광산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복지 현장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 복지플랫폼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위탁을 위한 가칭 '광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복지재단 설립은 민선 8기 광산구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복지 역량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광산구만의 플랫폼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령화 등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서비스도 세분화되면서 복지체계에 인한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 방식이 달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생기거나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위탁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운영주체의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주목하고 추진 과정에서부터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직영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결합하고 극대화하는 공공복지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은 총 44곳(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4곳이며 나머지 40곳은 기초자치체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복지연구원이 운영 중이고, 광주사회서비스원도 설립된 상태지만 자치구 단위의



광산복지재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복지플랫폼 구축은 더딘 상황으로, 광산복지재단이 광주 자치구 중 첫 도전에 나서게 됐다.

이 때문에 광산구도 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준비과정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 계획 수립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협업 TF를 구성·운영하며 재단 설립 시 검토사항을 살피고, 기본적인 추진 로드맵을 구상했다.

광산구 사회복지시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복지 주체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핵심 지향점은 복지재단이 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통합 복지 전담 기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위탁을 비롯한 민관 복지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광산구 직영 복지관 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우선으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넓혀 가는 한편, '광산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사업별, 기관별 표준 운영모델과 광산구만의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는 큰 틀의 방향도 설정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 정립과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1월 복지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복지 현장 활동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교수, 복지시설장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재단 설립 방향성 정립,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형태나 구체적인 사업 범위, 시설 종사자 신분 전환 등 예상되는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단에 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광산구는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수행사업, 인건비·출연금 예산 규모, 인력·조직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복지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복지재단을 통해 그간 쌓아온 복지역량과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시민과 복지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총합한 복지 안전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봉산초, 돌봄이웃에 장터 수익금·교내 모금액 기부



광주 봉산초등학교 박선영 교장과 학생들이 최근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나바다 장터 행사 등으로 모은 172만원을 봉산초 돌봄이웃 돕기 성공으로 기탁했다.

광주 봉산초등학교는 최근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돌봄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72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봉산초 학생회가 지난해 11월 아나바다 장터 행사 수익금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마다 돼지 저금통 1개씩을 비치해 모은 모금액을 통해 마련했다.

봉산초교 박선영 교장은 "학생들이 모은 수익금과 모금액이 관내 어려운 돌봄 이웃을 돕는 데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경두 첨단2동장은 "봉산초교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소촌농공단지 운영협, 광산구 돌봄이웃 설 명절 후원



소촌농공단지 운영협의회(회장 이정연)는 "지난 9일 광산구 돌봄이웃의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소촌농공단지 운영협의회는 2019년부터 매

년 명절마다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어룡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역 돌봄 이웃 돕기 성공으로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우리 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활동 올해도 기대

광산구, 지난해 이어 10명 위촉

광주 광산구는 "지난 9일 다양한 생활갈등을 조정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돕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2기'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웃갈등조정가들은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광산구 내 층간 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다양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해 원만한 해결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062-959-2642), 이웃갈등조정가들이

2인 1조를 이뤄 예비조정, 본 조정, 사후미팅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산구는 2018년부터 시작한 광산구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 중 8명을 지난해 1기 조정가로 선발·운영했다. 이를 통해 184건의 다양한 갈등 민원을 접수하고 총 68차례의 이웃갈등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 갈등 해소를 돕는 '소통특공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속의 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활동하는 10명의 이웃갈등조정가 역시 이웃 간 갈등을 화해·조정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웃갈등조정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찾아가는 이웃갈등 상담 접수처' 상시 운영, 5기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 등 조정가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웃갈등 조정가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갈등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통, 대화를 통한 자율적 이웃갈등조정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광주 광산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1인 기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

는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광산구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관광·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목을 모집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광산구 주민자치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달 말께 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